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8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군 탐방

오손도손 웅기종기 함께 하는 우리들은 번영로라는 이름으로 먼 이웃으로 갈라졌고,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생기면서 그 명성에 함께 묻어갈 수도 없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조천 선혈곶자왓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하여 선혈오름군이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있는 거문오름과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길에 위아래로 뚝하니 버티고서 비켜가라 하는 알밤·웃밤으로 통하는 바매기오름과 거문오름의 명성에 어쩔 수 없이 들러리 서며 제 몸 일부도 오롯이 내줘야 하는 개발에 몸살 앓는 우진제비오름. 하늘의 용트림에 놀란 가슴 겨우 진정시키자 이번엔 사람들이 아스팔트로 갈아놓았으니 우린 우리대로 의좋은 형제처럼 이웃처럼 지냅시다. 셋이서 넷이서 알콩달콩 부소, 부대, 골체오름과 싶으면 대천이나 방해오름으로 불을 까 양다리 걸치는 선혈 민오름을 탐방한다.



거문오름

복합형화산체인 거문오름으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지형경사를 따라 북동쪽으로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20여 개의 동굴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용암동굴계 중에서 뽕뽕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화구 둘레만 약4.5km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보다 2.5배 이상 넓은 거문오름은 그만큼 거대한 용암폭발이 있었고 많은 용암을 분출하면서 9개의 봉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용암돌굴계를 만들면서 바다로 빠져나갔다. 많고 많은 제주의 오름 중에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2007.7.2.)된 오름이기도 하다. 탐방은 사전예약이 필수다.



- 조천 중산간도로
알밤오름, 다화면-260, 704, 810번
- 변영로(97번도로)
거문오름입구-201, 220번



김녕굴 전경



만장굴 전경

하늘을 덮는 울창한 곳자왓 숲 사이로 붉은송이들이 재잘거리는 조용한 목책길을 따라 몸을 풀고 나서 태극길 정상코스 목책계단을 오른다. 몇 번을 와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자신의 몸에 감사한다. 잠깐 쉬어가면서 한라산의 기생화산 오름군들을 방향별로 감상할 수 있는 2개의 전망대와 정상 표지석(제1용拒文岳, 정상 456m)을 만나고 나면 삼나무숲으로 곧게 난 목책계단은 분화구 코스 입구까지 이어진다.

전문해설사와 동행하는 분화구 코스는 용암거품덩이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화산탄, 용암함몰구와 풍혈·숨굴, 수직동굴, 근현대사의 아픔 일본군강도진지, 다양한 동식물의 계절살이를 찾아라도 놓칠 수 없기에 오감과 손발이 척척 맞아야 구경도 하고 촬영도 할 수 있다. 분화구는 곳자왓로 자연숲을 이루고 있기에 탐방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곳자왓은 목책계단과 데크로, 뱅뒤와 인공조림지는 아자매트와 송이길로 탐방로를 내면서 생태계와 역사의 현장을 이어주고 있다. 곳자왓(인공조림 삼나무와 자연곳), 용암협곡, 붓순나무군락지, 알오름과 전망대, 숯가마터, 일본군주둔지와 갯도진지, 풍혈風穴과 숨굴, 화산탄, 병참도로, 식나무군락지, 수직동굴까지 해설사를 따라가면서 탐방대는 오름과 용암동굴계의 원초적인 모습과 현재의 모습까지 몇만 년의 시간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수직동굴탐방을 끝으로 목재데크

는 갈림길 태극탐방길을 내면서 8용을 찾아가라 한다.

목책계단이 완만하게 산등성이까지 이어주고는 산등성이와 8용(봉우리)탐방길은 아자매트길에게 인계하고 작별은 고향에 가 싶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만났다. 아니 용을 오를 때 마다 만나야 했다. 제9용회용은산봉回龍隱山峯, 8용청용음수봉靑龍飲水峯, 7용와용농주봉臥龍弄珠峯, 6용적용출운봉赤龍出雲峯, 5용자용고모봉子龍顧母峯, 4용회용고조봉回龍顧祖峯, 3용황용토기봉黃龍吐氣峯, 2용백용망해봉白龍望海峯. 1용흑용상천봉黑龍上天峯·拒文岳. 각 용은 산체에 따라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분화구를 에워싸고 그 정기를 잃지 않는 형상이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않는다. 그 정점에 제1용거문오름이 여의주를 품고 용암협곡을 만들며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을 지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실로 감은 오지 않으나 분화구 안에서 용트림한 그런 흔적들(숨굴, 풍혈)과 용암동굴들이 실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시한 용들의 세상을 빠져나와 세계자연유산센터 옥상 전망대에 올라 다시금 용을 바라보며, 제1용흑용상천봉, 2용백용망해봉, 3용황용... 되뇌이며 불러보고자 하나 채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억으로 저장되었구나. 거문오름에 경의를 표하고 방문자증을 반납하는 것은 다행히 잊지 않았다. 거문오름 태극길(정상+분화구+능선) 탐방로 약 10km.



당처물 동굴

칠월칠석이며 소서다. 오늘은 당당히 임시 제주민으로 제10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에 발을 맞추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탐방할 수 없기에 오후 일도 불구하고 태극길, 용암길, 진물길 탐방 나섰다. 낮익은 태극길 정상코스를 단숨에 탐방했는데, 분화구와 능선 코스, 용암 코스, 진물 코스 시작점 삼거리에서 탐방객들은 웅성거렸다. '거문오름 분화구 코스와 능선코스는 평소에도 신청하면 탐방 가능하므로 시간과 체력에 제약이 있으신 탐방객께서는 여기서 ➊ 출구로 바로 나가시거나, ➋ 기다렸다가 전문해설사와 함께 분화구 코스를 탐방하시거나, ➌ 개별적으로 용암길을 따라 뱅뒤굴에서 다화원으로 가시거나, 진물길을 따라 흐린내생태공원까지 가서서 ➍ 왕복버스를 타고 다시 유산센터로 오시면 됩니'라는 알림을 이해하는데 황금 같은 시간이 돌같이 흐르면서 좋은 탐방이 시간에 쫓기는 탐방꾼이 되었다.

만장굴, 김녕굴로 통하는 용암동굴계를 따라가는 용암길탐방로는 삼거리B1부터 시작하여 알밤오름자락B15 다화원까지 약 5km다. 뱅뒤와 송이 사이를 비집고 이상기온에 적응한 잡목(뿌리 쪽은 향온이고 줄기와 잎은 변온)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가까이 있는 용암동굴이나 용암함몰구가 내뿜는 숨소리는 한여름의 청량기다. 화산석을 감싸 안은 이끼와 한 줌 화산재에 뿌리를 내린 양치식물들이 한껏 머금은 습기를 내 뿜으면서 뜨거운 땀방울과 함께하며 무력무력 물안개를 피 올린다. 그렇게 햇볕 한줄기와 안내줄을 따라 잡목과 삼나무숲을 어딘지 모르게 가고 또 간다. 마지막은 뱅뒤굴이 위치를 확인시켜준다. 뱅뒤굴! 뽀얀 숨결-풍혈. 아! 천국이 여기다. 언젠가 숙이와 같이 했던 울릉도의 풍혈보다는 밀양얼음굴보다는 한층 더한 한여름의 한기를 내뿜고 있다(15℃ 정도). 해설사로부터 뱅뒤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서 몸의 열기를 다 빼내고 곳자왈온도를 찾았다. 다화원과 웃밤

탐방 갈림길B15에서 웃밤오름을 탐방하고 돌레길을 따라 다시 뱅뒤굴에서 탐방안내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진은 긴이라는 말로 긴 물 따라 가는 길이라고 일러준다. 잠깐이나마 뱅뒤굴에서 온몸의 열기를 반납하고 진물길로 향했다. 뱅뒤굴C1부터 시작해 푸른마을C5를 지나 흐린내생태공원까지 약 6km다. 뱅뒤굴의 시원함과 울울창창 삼나무숲과 잡나무가 입구를 벌리고 있는 동굴함몰구로부터 뿜어 나오는 냉기는 후텁지근한 산책길을 식히고 있었다. 삼나무와 잡나무숲길은 임도(목장길)와 이어져 잠깐 쉽고 다시 숲길로 접어들면서 힘든 길을 내준다. 때 묻지 않은 용암을 품은 이끼와 송이를 끼안은 뿌리와 곳자왈을 배려하며 낸 탐방로는 싱싱하고 신선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3관왕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자연보호가 끝나는 지점에 시멘트포장도로가 맞이하며 한여름의 열기를 다시 뿜어낸다. 새삼 조금 전의 곳자왈 탐방로에 고마움을 느낀다. 여기서부터는 속세다. 푸른마을, 숨골이라는 이름 좋은 마을안길에 펜션과 전원주택이 웅기종기 한껏 멋을 자랑하고 있지만 곳자왈을 능가할 수는 없다. 알밤오름이 견악등심見岳登心이었지만 경우가 아니었고 까망고띠는 실 자리를 깔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왕복버스는 말하고 있었다. 오늘도 탐방욕심이 과했군요. 세계가 인정하는 화산섬 제주! 거문오름을 통해 화산섬 제주의 생성과정을 어렵풋이나 그럴 수 있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



푸벅이 변영로 거문오름입구(210, 220번) → 탐방안내소1km

승용차 세계자연유산센터안내소

(자료·학습실,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바매기·우진제비오름

분주한 제주의 여름관광이 절정을 이룰 즈음 바매기(알밤·웃밤), 우진제비오름 탐방나섰다. 알바매기오름 3km, 웃바매기오름(정상 + 돌레길) 3.6km, 우진제비오름 3.7km, 들머리 + 길 찾기 7.2km, 약 17.5km 등산길이다.

곳자왈과 해변을 제외한 제주의 뱅뒤, 빌레는 염천으로 후끈 후끈 달아오른다. 알밤오름(해발 394m, 북서향말발굽형분화구) 초입부터 재선충방제길, 성토길, 돌레길, 임도로 여러 갈래 길이 있어 오름복사면 등산로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오르미의 눈으로 흔적과 안내표시를 찾아야 고생을 덜 한다. 북쪽애기봉에서 계곡



알밤오름



웃밤오름

을 거쳐 숨 가쁘게 산등성이를 오르면 역새능선의 따가운 햇볕에 데워진 땀방울은 일진광풍에 휘날리며 시선을 이끈다. 동쪽 능선 따라 아지랑이와 함께 힐끗힐끗 모습을 나타내는 오름들은 하늘로 증발할 것 같다. 정상은 산불감시초소와 삼각점이 더위에 지쳐있고, 분화구 능선은 남쪽 능선을 돌아 서북쪽 분화구 자락까지 이어지고, 얼굴만 내미는 분화구도 해송, 잡나무숲으로 분간하기 힘들며 자락은 임도에서 끊겼다. 돌레길은 탐방로로 이어지고 소·말발굽을 따라가는 목장길은 선교로, 다화연으로 이어졌다. 집라인을 타는 관광객들과 눈 맞추면서 다화연 차발 전망대 그린루체에서 더위를 식힌 다음 웃밤오름으로 향했다.

웃밤오름(표고 416m, 북향말발굽형분화구)간다. 말발자국을 따라가는 목장길·돌레길은 폭탄과 버무려져서 미끄럽고 질며, 북쪽분화구자락에서 시작하는 분화구 탐방 정상길은 해송과 잡나무 사이의 모시풀로만 짐작할 정도로 인적 끊긴지도 오랜 것 같다. 서북봉우리는 출맛으로 조금 시야를 터 알바매기를 인사시키고는 9부 능선을 따라 엉킨 덩굴들이 허리보다 낮은 아치를 만들며 머리 숙여 가라고 등산길이라고 내주고 있다. 누가 언제 오고 내가 오늘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듯 어느 순간 해송과 잡목, 덩굴이 끝나고 식생이 변하면서 남동쪽전망으로 고생한 보람을 안겨준다. 또 한 번 제주의 오름군에 감탄한다. 한 뼘 남짓한 정상을 알리는 용암에 걸터앉아 갈증과 허기를 채우는 만큼 전망도 채웠다. 힘든 등산만큼 비탈을 잡아주는 잡나무숲 분화구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아쉬움은 배가된다. 동쪽 진출입로에서 정보입석을 확인하고 뱅뒤못에 왔다. 못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리연은 예쁜 꽃을 피우며 한참 동안 발길을 잡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뱅뒤굴 풍혈은 최고다. 몸이 오싹할 즈음 길을 나섰다. 세상 학습하러 나온 까투리 새끼들도 터줏대감 행세하는구나.

거문오름을 우진제비오름으로 착각하고 헤매는 중에 고향 사람의 도움으로 선교로 우진제비오름(쌍봉 410m, 북동향말굽형분화구) 들머리에 왔다. 삼나무 사이로 곧게 뻗은 타이어매트

와 용암계단은 아련히 능선으로 이어지면서 몇 번 자리바꿈을 한 후에야 우진샘과 분화구, 능선산책로 갈림길에서 제 역할을 끝냈다. 위쪽 우진샘은 말랐고 아래쪽 샘도 옛날의 추억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주민들의 주 식수원이었다는 것을 무색케 한다. 돌계단과 타이어매트가 잡나무와 덩굴 사이로 길을 내어 산등성이를 이어주고 야자매트는 전망대(서쪽 정상)까지 편히 이끌고 동북 서쪽 눈앞에서 펼쳐는 바매기, 거문, 대천이, 민오름 전망이 한눈 가득히 채워준다. 날씨 땀에 한라산은 오늘 결석이다. 분화구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야자매트에 미끄럼방지로를 프까지 묶어 잘 단장하였고 타이어매트와 돌계단은 우진샘까지 안내한다. 룰루랄라 조금 가벼운 걸음이다. 오름자락을 따라 돌레길 시멘트 포장·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산책하기엔 어울리지 않으며, 남쪽 자락에 조성 중인 다운타운도 우진제비오름이 어쩔 수 없이 품어 주어야 할 아픔이다.

//////////////////// 
두박이 조천중산간동로(1136번 도로) 알밤오름(260, 704, 810번)

→ 탐방소100m

조천선교로 백화동(704-1, 2번)→ 우진제비오름탐방소1.7km

승용차 알밤, 웃밤, 우진제비오름 탐방소입구 빈터



우진제비오름과 한라산 오름군-웃밤오름에서 보기



부소악·부대악

번영로 셋길과 이어지는 부대악굴부리자락에서 정보입석이 말뚝과 함께 반갑게 맞이하나 사유지, 산책로라는 안내판이 경계하고 있다. 앞쪽 부대악과 뒤쪽 부소악은 이웃하지만 굴부리는 정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으나 둘레길과 임도로 이어져 있다. 부대오름은 사유지답게 둘레길은 마로가 되었고, 정상탐방로는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부소오름은 3개의 탐방코스를 개설해 오르는 물론 산책객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부대오름 남동 자락에서 초지를 가로질러 낙엽옷으로 갈아입은 등산로를 따라 북사면을 오르면 7부 능선에서 야자매트길이 부소오름(표고 469.2m, 서남향말굽형굴부리) 정상까지 책임져 준다. 정상은 소나무가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 사이로 북동쪽으로 전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상에서 길을 안내하는 3개의 부소오름숲길 안내판이 겁을 준다. 제1코스 520m/450m, 제3코스 2,490m 그리고 2코스는 어디에 있을까? 제1, 2, 3숲길+들머리 약 4.5km 등정절차를 치르고 제1코스 해송사이로 난 야자매트길을 따라 쉽게 내려가면 제2코스(406m) 갈림길을 만나고 울울창창 삼나무 숲속으로 난 야자매트길은 막다른 임도에서 끝나고 자갈길을 따라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가는 외로운 나그네는 부소오름숲길 안내판을 만나 신이 났다. 제1코스는 서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분화구와 정상을 탐방하는 길이고, 제2코스는 분화구 입구를 잇는(제1코스를 이어줌) 길이고 제3코스는 번영로 들머리에서 임도를 지나 동남사면을 통하여 정상에 오르는 길이다. 제 1,2코스를 통하여 다시 정상에 올라 야자매트길 해송숲을 지나 삼나무 조림지 임도를 따라 멀고 지루하고 피곤한 길을 걸어 부대오름 둘레길에서 부소오름 들머리 전경 사진 한 장으로 작별하고 부대오름 등산로 목책계단에 무거운 발을 올려놓는다.

부대오름(해발 468m, 동남향말굽형분화구) 정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종아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도 이놈의 오름 탐방 욕심은 끝날 줄을 모른다. 거의 8부 능선까지 이어진 나무계단은 허벅지까지 통증을 자극하고 있다. 야자매트길 정상탐방로는 뿌리째 드러누운 삼나무들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산 주인은 차라리 잘 났다는 듯이 방치하고 있고 잡초와 덩굴들도 제 세상을 만난 듯 이리저리 얹혀가고 있다. 1km 조금 넘는 분화구 능선을 따라 정상을 거쳐 반대편 분화구입구(제주오름승마장)에 왔을 때는 정말 내 자신이 미웠다. 오름이 뭐라고. 삶의 한숨이다.

어제 탐방하지 못한 부대오름 둘레길을 따라간다. 1~3m 간격을 두고 임도와 둘레길이 나란히 하고 있다. 둘레길은 승마꾼들의 마로요, 임도는 오르미들의 둘레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된 것 같다. 그렇게 둘레길과 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로와 마주하면서 둘레길을 마무리하였다. 앞에는 민오름이 웅장하게 옆에는 골체오름이 초라하게 누워있다. 부대오름정상탐방로 1.1km, 산책길 3km, 들머리 350m.

뚜벅이 거문오름입구(210, 220번)

→ 부소/부대오름탐방소 1.2km/370m

승용차 번영로 제주오름승마랜드입구와 부소오름국유임도 입구 빈터

골체오름·민오름

선교로에서 골체오름캠핑장으로 난 시멘트포장도로를 들어서면 바로 골체오름(표고395.3m, 서남향U형분화구) 초입이다. 정상까지 473m라는 방향표지판이 가리키고 밑에는 널따란 야자매트길이 너무 잘 구성되어 있어 고맙다(제주관광공사하염지킴기봉사단). 나지막하고 완만한 정상 산책길이 누구와도 함께 걷기 좋은 오름이다. 정상 긴 의자도 그렇고 높지는 않지만 북동쪽으로



골체오름-선교로에서 보기

탁트인 정상전망이 가족과 함께 하기에는 좋다. 왼쪽에 민오름(선흘), 우진제비, 옷밤, 북, 거친, 거문, 부대오름으로 360도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작다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오르미가 되었다. 민오름에서 왕벚꽃으로 물든 벚꽃동산 골체오름 장관을 볼 수 있다면 생활의 일변도를 껴 수 있다. 골체오름 탐방로순환 460m, 들머리 950m.

길을 내려 처음처럼 민오름(표고 518m, 북서향 3개의 원형 화구)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탐방로 입구를 향해. 애완동물수목장을 초지를 공동묘지를 지나 자락을 따라 난 임도를 만났다. 좌우 어느 쪽으로 가든 오르미의 마음이다. 편한 대로 왼쪽 길로 감을 잡았다. 공동묘지가 끝나는 그곳에 삼나무 숲속으로 난 등산길이 산불조심취장과 함께 있다. 줄을 맞춰 조림한 삼나무줄 공간을 따라 너무나 곧게 곧바로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길이 나 있다. 이것이 정녕 민오름 탐방길이 맞는가? 가파른 등산길이기엔 야자매트도 타이어매트도 깔 수 없는 것은 이해간다. 그러면 조금 다듬어진 나무계단이라도 만들었으면 좋으련만 건장한 오르미가 아니면 감히 탐방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경고다. 오로지 정상으로만 향하는 길이다 보니 언덕 수준에서는 다듬지 않는 삼나무를 걸쳐 계단을 만든 것이 그렇다. 두세 번의 깊은 심호흡으로 체력을 보완하며 정상에 올랐다. 순간 키를

홀쩍 넘는 거친 역새 물결이 와락 감싸 안으며 놓아 주질 않는다. 며칠째 오르미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역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쪽의 삼나무숲과 동남쪽의 트인 전망만이 위치와 방향을 알려 줄뿐이다.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짐을 현실로 하고서야 산불감시초소를 만났다. 잠시 전망삼매경에 빠졌다. 여태까지 올랐던 조천일대의 오름들을 찬찬히 하나하나씩 불러본다. 가까이 우진제비, 거문, 부대, 산굼부리, 대천이오름과 좀 떨어져 있는 오름들은 시샘하고 있으나 다들 챙겼다가는 해가 질 것이다. 역시나 한라산은 오늘도 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는구나.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난 분화구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원가 다르다. 가시덤불과 잡나무가 등산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 정상까지 이어진 삼나무숲 등산길과는 전혀 다른 북서사면은 잡나무로 늦가을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맛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느 오름처럼 자락은 삼나무로 등산길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마냥 난 길이라 따라가다 보니 초입의 그 임도로 나왔다. 그리고 정보입석과 탐방로가 소나무와 역새를 치워주길 고대하고 있었다. 약간의 흔적을 남기며 북서쪽 자락을 따라 그 끄찍한 길 방애오름탐방길을 오늘도 걸었다. 대천이, 방애오름 자락을 돌아 선교로 산굼부리교차로에서 산굼부리 역새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여기저기 추억을 쌓는 관광객들의 아름다운자태와 감미로운 말과 역새물결이 잘 어울리면서 산굼부리의 가을은 성숙을 더해가고 있다. 서툰 사진사와 카메라로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기면서 오늘의 추일서정을 마무리한다. 골체오름에서 들머리 1km, 정상탐방로 1.2km, 둘레길 3.5km



두벽이 거문오름입구(210, 220번)

→ 골체오름 950m/민오름탐방소 1.6km

승용차 선교로 골체오름입구, 선흘민오름길 요단강공원 입구 주차



민오름-들머리에서 보기



연계관광지

다화연 일명 경덕원(景德院)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도 순수한 녹차를 생산하여 인류의 건강장수에 이바지한다는 거창한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탁트인 녹차밭 위로 일기설기 집라인 줄이 어지럽지만 질서를 유지하며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브홀 차문화관, 동굴카페, 빌레연못과 연꽃, 야외공원, 복합허브테마공원과 살바도르 달리의 조형물, 그리고 정상 그린루체의 전망대, 꽃자왈아아동굴(장수의 샘), 행운분수에 더해 전동차체험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일단 집라인부터 타고...



산굼부리[산이 구멍난 부리] 대한민국천연기념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마르(Maar)형화구, 온난대가 같이 형성되어 있는 분화구, 촬영지(영화-연풍연가, 드라마-결혼의여신)라는 것 정도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된다. 그냥 산굼부리에 들어서서 분화구를 둘러보고 전경을 보고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멋진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산굼부리탐방로(억새길) 1.5km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코시롱·배지근·돌코롱
제주의 다양한 맛축제,

향기와 맛이 어울린 진국이 구수하고, 해산물 국물이 감칠나게 맛있어 배부르고, 맛이 아주 달달한 제주 음식 맛.

제주음식 거문오름이 가지는 검다는 이미지에 착안하여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블루베리 등 슈퍼푸드인 블랙푸드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가치를 결합시킨 검은오름블랙푸드에서 건강한 제주의 맛을 즐겨보세요.



제주명소

1100고지 휴게소 및 람사르습지 물영아리오름, 물장오리오름, 동백동산습지와 함께 제주 1100고지습지는 한라산고원지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산지습지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고유생물, 경관, 지질 등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 람사르습지로 등록, 보호하고 있다. 나무데크로 잘 단장된 자연학습탐방로 675m를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전망도 즐기고 생태관찰도 하면서 새지저귀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그렇게 맑고 청아한 소리에 마음이 정화된 당신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의 대표 산악인 고상돈(高相敦)(1948~1979, 1977.9.에베레스트등정)의 얼도 새기고, 어질고 호심이 지극한 사람에게만 보이며 큰 행운과 장수를 준다는 백록(白鹿)도 한번 만나보시죠.



- ▲ 1100고지 람사르습지
- ▶ 1100고지 휴게소 백록상



☞ [] 제주방언, () 보충설명

☞ 정보검색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wnhcenter.jeju.go.kr

제주 서북부 중산간을 가로지르는 평화로 소음에 잠 못 들고 입춘지절이면 또 한 번 자신을 활활태우며 용트림하는 송고한 새별오름. 서북초원에 우뚝 솟아 전망·방송·레저를 함께 제공하는 금오름. 이어 가는 길을 결코 지루하거나 밋밋하게 하지 않는 이달봉, 가메·누운·밝은오름과 세미소가 함께한다. 🌿